

주니어RHK 독서 활동지 <플라스틱 해결사 1. 틴뎴, 빨간 풍선을 띄워라>

— 현직 초등 교사 집필 · 교사 및 양육자를 위한 설명서 수록 —



카네기상
수상 작가
샬리 가드너
작품

2021
북트러스트
올해의 좋은 책
선정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7개국 수출

현직
초등교사
강력 추천

플라스틱 해결사 1. 틴뎴, 빨간 풍선을 띄워라

샬리 가드너 글 | 리디아 코리 그림 | 이은선 옮김 | 144쪽 | 12,000원 | ISBN 978-89-255-7753-1 (74840) | 초등 중학년 이상

교과 연계 (해당 학년·과목·단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2 국어 - 8.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3-2 도덕 - 6.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4-1 도덕 - 3.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

4-2 국어 - 4. 이야기 속 세상

5-1 사회 - 1. 국토와 우리 생활

5-2 과학 - 2. 생물과 환경

6-2 사회 - 2.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6-2 도덕 - 6.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현직 초등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플라스틱 해결사 1. 튜뎀, 빨간 풍선을 띄워라》의 주인공은 '튜뎀들'입니다. 튜뎀들은 플라스틱 섬에 사는 작은 친구들이지요. 행주로 원피스를, 컵으로 의자를, 플라스틱 블록으로 집까지 똑딱 만들어 내는 재활용 전문가들이랍니다. 각양각색 매력을 뽐내는 튜뎀들의 이야기는 독자들을 웃음 짓게 합니다. 어느 날, 튜뎀들과 플라스틱 섬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요. 플라스틱병으로 만든 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어 플라스틱 섬을 조종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먼 나라 이야기 같던 쓰레기 문제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는 대목입니다.

튜뎀들이 사는 플라스틱 섬은 이야기 속에만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튜뎀들의 플라스틱 섬을 꼭 닮은 쓰레기 섬이 있어요. 바로 'GPGP : Great Pacific Garbage Patch'인데요. 대한민국의 16배 면적의 거대한 쓰레기 지대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문제는 해양 쓰레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재활용 대란, 매립지 분쟁,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 등 다양한 쓰레기 문제는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 환경 전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미래 세대는 삶에서 '환경'이라는 이슈를 필연적으로 고민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바로 **환경 감수성**입니다. 환경 감수성이 충분한 아이는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환경을 지켜 주고자 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환경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요. 교사와 양육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에게 '마음'을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플라스틱 해결사 1. 튜뎀, 빨간 풍선을 띄워라》는 참 고마운 책입니다. **아이들은 이 책을 읽으며 어렵게 느껴지는 환경 문제를 튜뎀들의 시각에서 쉽고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튜뎀들을 구할 수 있을까?'라며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섬이 처한 문제에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고, 튜뎀들처럼 재활용을 해 보고 싶어하기도 하겠지요. 더 나아가 플라스틱병들이 대체 어디서 왔는지 깊게 성찰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함께 책을 읽을 교사와 양육자들에게는 더 큰 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튜뎀들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을 닮았기 때문이지요. 환경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도 막중한 피해를 떠맡은 점이 특히 닮았습니다. 그럼에도 튜뎀들은 크게 절망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모두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튜뎀들의 문제 해결 과정을 보며 '우리도 할 수 있어.', '나부터 해 보자!'라고 생각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이들이 깊게 고민하도록,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세요. 혹시 또 모르지요? 오늘의 경험이 꼬마 튜뎀 브루가 꾸는 꿈(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애 버리는 마법)을 실현시킬 멋진 과학자를 만들지도요!

이다희(라운초등학교 교사)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 하는 MZ세대 교사입니다. 요즘 가장 하고 싶은 일은 환경 문제를 나눌 동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실 안에서는 아이들과, 교실 밖에서는 연구회 활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뿌린 씨앗이 여러 아이들의 삶 속에 뿌리내리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 학교 밖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구하자 환경교육연구회' 활동
- 2022년 환경부 선정 교사 학습 공동체 '초록(初綠)' 활동

미션 1 : 표지 꼼꼼히 살피기



책을 읽기 전에 표지 그림과 제목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 볼까요?



① 그림을 살펴봅시다.

- 이곳은 어디일까요?
- 등장인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 이 물건들은 모두 어디에서 왔을까요?

② 제목을 살펴봅시다.

- ‘플라스틱’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 ‘플라스틱 해결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표지를 보며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하여 써 봅시다.

미션 2 : 팀딩은 누구일까요?



<플라스틱 해결사>에는 여러 팀딩이 등장해요. 팀딩들은 개성이 뚜렷하고, 각자 역할이 있는 친구들이지요. 빈칸에 팀딩들의 이름을 하나씩 채우다 보면, 플라스틱 섬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쉬워질 거예요!



스키틀과 핀치

플라스틱 섬에 사는 꼬마 팀딩과 반려동물. 용기 있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_____ 과 _____

스키틀의爸爸와 엄마. 플라스틱 섬을 안전하게 조종하는 역할을 해요.



_____ 스키틀의 단짝 친구. 마법사가 되어 플라스틱병을 없애고 싶어 해요.



_____ 와 _____,

베이비컵

브루 엄마와爸爸, 여동생. 특히 브루爸爸는 다양한 정보를 모아 팀딩들에게 알려 줘요.



_____ 기관실 담당자이자 플라스틱 섬의 문제 해결사. 못 만드는 것이 없어요!



_____ 와 _____

플라스틱병으로 만든 산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부부. 서로를 무척 아껴요!



_____ 매듭의 여왕. 갈고리로 갖가지 물건을 건져 올려요.



라라블라

신비한 힘을 가진 노래를 불러요. 물고기 병원에서 근무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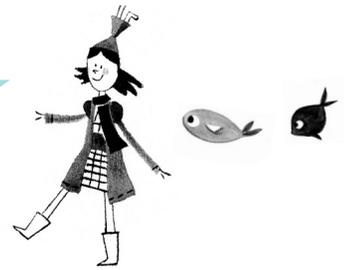


_____ 정성으로 식물을 기르는 다정한 정원사예요.

한 팀딩도 빠뜨리면 안돼요. 모두 플라스틱 섬을 위해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들이거든요!

미션 3 : 이야기 정리하기

평화로운 플라스틱 섬에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초성 힌트를 보며
빈칸을 채워 보고, 각 카드에 시간 순서대로 번호를 써 보세요.



1

긴 다리들이 버린

표 **르** **스** **트** 쓰레기가



섬으로 흘러와요.

틴딴들은 열심히

지 **허** **오** 을 하지만,

쓰레기가 계속 쌓여
결국 산이 되었어요.



라라블라가

방향을 알려 줘요.

휴! 돌아오지 못할 뻔한

라라블라가 바다 생물들의

도움을 받아 돌아와요.



그러던 어느 날,
북쪽으로 떠밀려 간 섬에
새하얀 **ㄴ** 이 내려요.

추운 환경에서는

루루나무를 기를 수 없고,

‘짹한 바다 축제’도 열 수 없어요.

그래서 틴딴들은 섬을 따뜻한
곳으로 옮기려고 해요.

플라스틱 산 때문에

언젠가 플라스틱 섬이

위험에 처할지도

몰라요.

모두 힘을 합쳐서
빨간 풍선을 띄워요.

ㅁ **ㅇ** 와 **ㄱ** **ㄹ** 가



풍선에 바람을 넣어
주었어요.

스키틀과 브루는

바다에서

ㅂ **ㄱ** **표** **스** 을

건져 올려요.



틴딴들은

행복하고 즐거운

축제를 열어요.

다들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정답은 10쪽에 있어요!

미션 4 : 튜브와 긴 다리들의 세계

미션 3에서 정리한 내용과 현실 세계의 상황을 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쓰레기 문제를 비롯한 환경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1. 긴 다리들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섬으로 흘러와요.

가. 우리가 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많은 쓰레기가 돼요.

2. 플라스틱 산 때문에 언젠가 플라스틱 섬이 위험에 처할지도 몰라요.

나. 사람들 외에도 생태계를 이루는 많은 생명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3. 그러던 어느 날, 북쪽으로 떠밀려 간 섬에 새하얀 눈이 내려요.

다. 동식물들이 살기 어려워지고, 억만금을 들여도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대요.

4. 추운 환경에서는 '쟁한 바다 축제'를 열 수 없어요. 그래서 튜브들은 섬을 따뜻한 곳으로 옮기려고 해요.

라. 우리는 열심히 고민해서 환경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해요.

5. 스키틀과 브루는 바다에서 건진 빨간 풍선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마.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위험에 처해요.

6. 라라블라가 방향을 알려 줘요. 휴! 돌아오지 못할 뻔한 라라블라가 바다 생물들의 도움을 받아 돌아와요.

바. 그동안 한번도 녹지 않았던 빙하가 녹고, 홍수와 태풍 피해가 심각해져요.

정답은 10쪽에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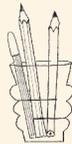
미션 5 : 오늘의 쓰레기가 내일의 보물!



미션 4를 잘 해결했나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계속 버리면 긴 다리들의 세계에 큰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플라스틱 통을 보물로 변신시켜 볼까요?

① '페트병'으로 보물 만들기

-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 페트병 그대로 쌀, 콩, 가루 보관함
 - 가로로 자르면 연필꽂이
 - 비스듬히 자르면 모종삽
 - 잘라서 뒤집으면 갈때기
- 또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② '요거트 통'으로 보물 만들기

-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 알록달록 꾸며 주면 예쁜 다육이 화분
 - 뒤집어서 물건을 숨기면 숨기기 놀이 도구
 - 누가 더 높이 쌓을까? 쌓기 놀이 도구
- 또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③ '뚜껑'으로 보물 만들기

-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 비누에 병뚜껑을 꽂아 보관하면 비누가 물러지지 않아요.
 - 누가 더 멀리 날릴까? 날리기 놀이 도구
 - 물티슈 뚜껑을 콘센트에 덮으면 안전한 콘센트 덮개
- 또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④ 나의 보물 아이디어

플라스틱 통은 정말 다양한 보물로 바뀔 수 있군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골라 보고,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직접 만들어 보면 더 좋겠지요? 안전에 유의하세요!
칼과 가위를 사용할 때는 어른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미션 6 : 플라스틱을 없애는 마법

아무리 재활용을 하고 또 해도 누군가 계속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면, 플라스틱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거대한 섬이 되어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겠지요. 플라스틱을 없애거나 줄이는 마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내용을 고민하여 실천해 보고, 소감을 이야기해 보세요.



- 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 보세요.
- ② 그중 하나를 골라 수련해 보세요.
- ③ 미션 활동을 마친 후, 느낀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마법 수련 방법

예	페트병 생수를 사 먹는 대신 텀블러에 물 담아 마시기
1	
2	
3	

〈마법 수련 일지〉

수련 방법 :

수련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사와 양육자를 위한 미션 안내서

6가지 미션 활동지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단계별 미션을 해결하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환경 보호를 위해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션 활동에 앞서

아이에게 책을 소개해 주세요.

평소 아이들은 환경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보호해야 하는 대상',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등 어려운 말을 떠올리게 하는 말'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아이들이 환경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어떻게 하면 틴덤들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풍부한 환경 감수성을 지닌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미션 활동에 앞서

이럴 때 읽어 보세요.

- 아이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 어렵고 딱딱한 환경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 주고 싶을 때
- 자원의 소중함을 모르고 낭비하는 아이의 모습이 안타까울 때
- 쓰레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 싶을 때
- 재활용, 분리수거, 업사이클링 등 기후 행동 실천에 대한 계기가 필요할 때

책을 읽기 전에

미션 1 : 표지 살펴보기

책을 읽기 전 표지를 살펴보며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대한 힌트를 얻는 활동입니다. 먼저 표지 그림을 보며 이곳은 어디일지, 플라스틱 물건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플라스틱' 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떠올려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책을 읽기 전 마지막 활동으로 '플라스틱 해결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 같은지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내용을 짐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미션 2 : 틴덤은 누구일까요?

이 책에는 많은 틴덤이 등장합니다. 틴덤들은 저마다의 역할을 가지고 플라스틱 섬을 잘 꾸려 나가기 위해 협력하지요. 미션 2는 틴덤들의 소개글과 그림을 보고 이름을 써 보는 활동입니다.

등장인물에 대해 정리하는 활동은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플라스틱 섬을 위해서 모든 틴덤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미션 3: 이야기 정리하기

〈플라스틱 해결사〉 시리즈는 환경 논픽션이 아닌 환경에 대한 이야기책입니다. 때문에 스킷들과 여러 팀의 소소한 일상이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중심이 되는 사건은 섬이 처한 문제와 그 해결 과정입니다. 미션 3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빈칸을 채워 보고 순서를 나열하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책을 읽으면서

미션 4: 팀들과 긴 다리들의 세계

팀들의 이야기 속 쓰레기 문제를 현실 세계로 가져와서 우리가 처한 문제와 연결하여 이해해 보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쓰레기 문제의 인과 관계와 부정적인 영향, 협력, 도움을 주고받는 생명들 등 이야기 저변에 깔린 묵직한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만약 아이가 미션 4를 어려워한다면, 기후 위기나 생태계 변화에 대한 다른 자료를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미션 5: 오늘의 쓰레기가 내일의 보물!

팀들처럼 재활용 전문가가 되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는 활동입니다. 책을 읽고 미션 4까지 해결했다면, 아이들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미션 5는 쉽고 재미있게 실천을 시작해 보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떠올리는 아이디어가 조금 투박하고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아이디어 중 최소 한 가지를 골라 만들어 보도록 지도해 주세요. 자신이 직접 만든 물건을 볼 때마다 아이들은 자기 효능감이 충만해지고,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미션 6: 플라스틱을 없애는 마법

재활용도 좋지만 플라스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법은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물건들은 값싸고 편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실천을 지속하려면 교사와 양육자가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실천하겠다고 적은 수련 방법을 단 하루 동안이라도 지켰다면, 듬뿍 칭찬해 주세요. 또 시간을 늘려 가며 플라스틱 없는 삶에 익숙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상의 모든 플라스틱을 없앨 수는 없지만, 필요 없는 플라스틱을 삶에서 덜어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독서 활동지 정답>

- 미션 3 : 플라스틱, 재활용, 눈, 문어, 고래, 빨간, 풍선, (가로 순서대로) 1, 2, 8, 4, 5, 3, 7, 6, 9
- 미션 4 : 1-가, 2-마, 3-바, 4-다, 5-라, 6-나

책을 읽고 나서

틴덤들의 다음 모험이 궁금하다면



〈플라스틱 해결사〉 시리즈(전 4권)
샬리 가드너 글 | 리디아 코리 그림

책을 읽고 나서

판타지를 통해 현실적인 고민과 주제를
이야기하는 작품을 만나 보고 싶다면



《지퍼백 아이》
김유 글 | 박현주 그림

책을 읽고 나서

번뜩이는 재치로 고민거리를
타파해 나가는 주인공을 만나 보고 싶다면



〈빙구는 600살〉 시리즈(전 2권)
이승민 글 | 최미란 그림